

‘총당금’에 울고 웃는 은행권... 3분기 장사 누가 잘했나

금타·모뉴엘 등 ‘집나간 탕아’의 귀환이 최대 변수

(총당금 환입)

금타 3분기 전체 환입 규모 2300억 KB, 환입 여부 따라 ‘깜짝 실적’ 기대

〈금호타이어 익스포저 및 총당금 적립 현황〉

단위: 십억원

구분	2Q18A 익스포저	기적립액	적립률	3Q18F 예상환입액	예상적립률
KB	67	60	90%		
신한	48	34	71%	28	12%
하나	177	109	62%	68	38%
우리	420	120	29%	NA	NA

/자료=각 사·KIS-Line·한국투자증권

은행권 실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손총당금이 은행별 실적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9370억원으로 신한금융지주 8600억원을 앞섰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순이익 추정치는 각각 6080억원, 5700억원으로 격차가 400억원도 되지 않는다. IBK 기업은행은 순이익이 456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손총당금은 은행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일정 부분을 미리 쌓아 두는 돈이다. 자산 건전성 분류에 따라 최소한으로 쌓아야 하는 총당금은 정해져 있지만 그 이상 어떤 비율로 쌓을 지는 은행이 결정한다.

대손총당금은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를 쌓을 지는 은행의 선택이다. 순이익 격차가 크지 않다면 대손총당금을 얼마나 쌓았느냐에 따라 실적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특히 이번 3분기는 일부 총당금 환입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실적에 악재로 작용했던 대손총당금이 효자로 탈바꿈했다.

실제 금호타이어 총당금 적립률도 은행마다 다르다. KB가 90%로 가장 보수적으로 총당금을 쌓았고, 신한과 하나는

각각 71%, 62%다. 우리은행의 금호타이어 총당금 적립률은 29%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원 안팎의 총당금이 환입될 전망이다.

만약 보수적으로 보고 총당금을 많이 쌓은 경우 향후 기업 사정이 좋아지면 은행에 환입액으로 들어와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올 상반기 일부 은행들의 총당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순이익에 플러스가 됐다.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연구원은 “신한은행의 경우 금호타이어 총당금 280억원 안팎의 환입이 발생하며, 그룹 대손율도 0.28% 내외로 양호할 것”이라며 “하나은행의 총당금환입은 금호타이어 680억원, 모뉴엘 150억원, 전입은 다이나맥 18억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3분기에는 금호타이어 관련 총당금이 환입된다. 더블스타로부터 자산을 유지하면서 건전성이 재분류된 결과다. 은행 전체적으로 환입될 금호타이어 총당금 규모는 2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나가 680억원, 신한이 280억원 규모다.

특히 보수적으로 총당금을 쌓았던 KB의 경우 환입 반영 여부에 따라 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사기로 소송 중이었던 모뉴엘에 대해서도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570

대신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대부분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추정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호타이어와 모뉴엘 총당금 환입이 크게 발생하는 KB금융의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큰 폭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1@metroseoul.co.kr

“고객과 은행 ‘연결’... 디지털 영토 확장”

나는 뱅커다

⑤ 이창기 농협은행 디지털전략부장

‘NH스마트 고지서’ 130만명 돌파 맞춤 플랫폼으로 수익 다각화 기여



이창기 농협은행 디지털전략부장. /농협은행

“농협은행의 디지털 전략 핵심은 ‘연결(Connectivity)’이다. 과거가 ‘규모의 경제’ 시대였다면 현재는 외부와의 연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는 ‘연결의 경제’ 시대다.”

이창기 농협은행 디지털전략부장은 이처럼 디지털 전략의 핵심을 ‘연결’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디지털전략부는 단순히 IT(정보기술), 디지털 역량 강화에 몰두하기 보다 고객의 금융 소비동향에 맞게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은행을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NH스마트 고지서’다. 최근 이용고객 130만명을 돌파한 이 플랫폼은 각종 청구서 및 안내장, 학원비 등을 스마트폰으로 자동알림 받고, 즉시납부가 가능한 앱 서비스다. 현재 농협은행의 스마트고지서 플랫폼은 250만건의 이용자에 고지서를 내보내는 등 은행권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핀테크 업체, 통신사 등 이종업계와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객이 금융에 접근하는 방식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은행점포, ATM(현금자동인출기) 등 오프라인채널에서 어플을 통한 모바일 뱅크로, 이제는 핀테크 기술을 통해 은행권의 플랫폼을 접근하지 않고도 결제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한다.

이 부장은 “플랫폼을 통해 복잡한 청구내용과 납부 과정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은행은 플랫폼을 이용한 납부수수료를 받아 은행의 수익다각화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은 메신저 어플을 통해 타인에게 송금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플랫폼에 은행계좌 정보만을 입력할 뿐 은행 어플에 직접 접근하지 않는다. 이 같은 금융소비의 변화는 농협은행이 ‘올 커넥티드 인 앤 아웃(All Connected In & Out)’이라는 슬로건을 디지털 전략에 내건 까닭이기도 하다.

농협은행은 현재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NH핀테크 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에는 11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해 센터에서 오픈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시험 등 테스트베드를 진행하고 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이 부장은 ‘연결’의 방법을 보다 다양화하고 차별화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그는 “고객이 모여드는 타 채널로 농협

저축銀 건전성도 ‘부익부 빈익빈’

고정이하여신 비율 격차 커 중 소형 10%·대형 2% 이하 자산격차·시장 집중 쏠림도

〈대·소형 저축은행 자산별 고정이하여신비율〉

단위:백만원·%

구분	저축은행명	총자산	고정이하 여신비율
소형저축은행	대아상호저축은행	19,546	20.56
	대원상호저축은행	29,201	33.08
	삼보상호저축은행	29,765	12.02
	강원상호저축은행	75,955	3.04
	센트럴저축은행	83,195	0.88
	스타저축은행	106,768	8.04
	머스트삼일저축은행	119,836	3.63
	오성상호저축은행	127,166	1.92
고정이하 여신비율평균			10.39
대형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2,015,698	8.27
	페퍼저축은행	2,084,275	4.47
	애쿠온저축은행	2,218,617	9.95
	JT친애저축은행	2,298,906	2.35
	유진저축은행	2,350,027	2.19
	한국투자저축은행	2,615,071	3.17
	OK저축은행	4,405,703	7.84
	SBI저축은행	6,677,190	5.41
고정이하 여신비율평균			5.45

/자료=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저축은행 업계의 대출 건전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위를 기록한 저축은행은 대원·대아 상호저축은행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은 곳이었다. 대원상호저축은행의 총자산은 292억원에 불과했으며, 대아상호저축은행과 대백저축은행도 각각 195억원, 145억원 수준이었다.

업계 전반에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중소형사는 누적되는 적자와 부실여신 확대 등으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0% 이상을 넘어서고 있는 것. 반면 건전성 관리에 성공한 중·대형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 이하에 머물고 있어 건전성 측면에서 저축은행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총자산 2조원 이상의 8개 대형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균 5%대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중인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지난 6월 기준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0%를 넘는 저축은행은 총 8곳으로 나타났다. 대원상호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33.08%로 가장 높았고, 대아상호저축은행(20.56%), 대백저축은행(13.88)이 뒤를 이었다.

애쿠온저축은행(구 HK저축은행)은 9.95%로 집계됐으며 OK 7.84%, 웰컴 8.27%, SBI 5.41%, 페퍼 4.47%, 하나투자 3.17%, JT친애 2.35%, 유진 2.19% 순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고정·회수이문·추정손실 여신의 합계액이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자산건전성이 좋다고 판단한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1.80%로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5%로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나 상승했다.

문제는 총자산 3000억원 미만의 소형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것. 79개 저축은행 중 총자산이 최

일각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부실 채권이 늘어나 저축은행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소형저축은행이 실적부진과 부실여신이 확대돼 부실화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대·소형저축은행의 자산격차뿐만 아니라 시장 집중도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소형업체들의 경우는 각종 규제 등으로 영업을 확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국민은행 은행권 최초 해외운용‘ETF 신탁’

KB국민은행은 오는 15일 해외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신탁상품을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역외 ETF신탁은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안상미 기자

은행 연체율 적신호... 中企·가계대출 연체 ↑

전월 말비 0.05%p ↑... ‘상승세’

은행 대출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중소기업과 가계 신용대출에서 연체율 상승폭이 컸다.

신규 연체 발생액이 1조4000억원 규모로 연체채권 정리 규모인 6000억원을 웃돌아 연체채권 잔액이 늘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1%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해서도 0.11%포인트나 높아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87%로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1.80%로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5%로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나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3월 말 0.

45%에서 4월 말 1.76%로 상승한 바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고,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49%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전월에 이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승했다”며 “향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 증가에 대비해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